전북금연지원센터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금연성공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용동 344-2) 원광대학교병원 외래1관 1층
TEL | 063) 859-2400 ~ 2410 FAX | 063) 859-2414

전주매일
2016년 7월 29일 금요일 (음 6월 26일) 제1612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 경 문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헌재, 김영란법 '합헌'

헌법소원 제기 16개월 만에

시행령 확정 등 거쳐 9월 28일부터 시행 언론인·사립학교원 부정청탁시 처벌

김영란법 국회 통과 및 헌재 합헌 결정 진행 일지

◇2012년 ▲8월16일 =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법 제정안 발표
◇2013년 ▲7월30일 = 김영란법 수정 정부 입법안 국무회의 통과, 국회 제출
◇2014년 ▲5월19일 =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 통해 김영란법 국회 통과 요청
▲5월27일 = 김영란법 5월 임시국회 처리 무산
▲7월10일 = 여야, 김영란법과 정부조직법 등 우선 처리 합의
▲12월3일 = 김영란법 정기국회 처리 무산
◇2015년 ▲1월7일 = 국회 정무위, 김영란법 제재 대상에 언론사·사립학교 포함
▲1월8일 = 김영란법,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3월3일 = 김영란법, 국회 법사위 및 본회의 통과
▲3월5일 = 대한변협, 헌재에 김영란법 위헌 확인 헌법소원심판 청구
▲3월27일 = 김영란법 공포
▲12월10일 = 헌재, 김영란법 사건 공개변론
◇2016년 ▲4월26일 = 박근혜 대통령,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김영란법 보완 필요성 언급
▲5월9일 = 권익위,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안 발표
▲7월28일 = 헌재, 김영란법 합헌 결정

위헌 논란을 빚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판결을 내렸다.

〈관련기사 2면, 3면, 6면〉

헌법재판소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대심판정에서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김영란법 헌법소원 심판사건에 대해 헌법소원 제기 16개월 만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날 우선 법 적용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를 규정한 부분은 재판관 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은 시행령 확정 등 후속 작업을 거쳐 당초 예정대로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공무원과 언론인, 교육자 등은 직무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원,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재판부는 "교육과 언론이 국가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이들 분야의 부패는 그 피해가 광범위하고 장기적이다"며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을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배우자가 법이 금지한 금품을 수수한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한 조항도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공직자의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등을 금지한 김영란법은 지난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정안을 발표하고 1년여 만에 국회에 제출했지만, 위헌 논란 등으로 몇 차례 처리가 불발된 바 있다.

위헌 논란을 빚은 핵심 4대 쟁점은 ▲언론인·사립학교 임직원을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한지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금품수수 사실 등을 알게 될 경우 신고를 의무화한 것이 과잉규제인지 ▲부정청탁의 개념이 불명확하게 규정돼 있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지 ▲3·5·10 만원으로 정한 금품이나 경조사비 등 액수를 대통령령에 허용할 수 있는지 등을 놓고 논란을 빚어왔다.

이에 대한변협 등은 지난해 3월 5일 "언론인을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에 포함한 것은 헌법 제21조 언론의 자유와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권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이어 언론인과 사립학교·유치원 관계자 등이 추가로 같은 소송을 제기, 헌재는 총 4건의 헌법소원사건을 병합해 위헌 여부를 심리했다.

/박용주 기자

전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장에 김명지 전주시의장

지방의회 발전 등 적극 나서기로

전북 시·군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단협의회장에 김명지 전주시의회 의장(사진)이 선출됐다.

전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는 28일 정읍시의회에서 제218차 의장단협의회를 열고 제7대 후반기 전북시·군의회의장단 협의회장으로 김명지 전주시의회 의장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이날 선출된 김명지 협의회장은 향후 2년간 의장단협의회를 이끌게 된다.

또한 협의회는 이날 김 협의회장을 도와 후반기 전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를 이끌어나갈 상임부회장과 감사 등의 임원을 선출했다.

상임부회장에는 익산시의회 소병홍 의장을 비롯해 완주군의회 정성모의장과 진안군의회 박명석 의장, 임실군의회 문영두의장, 순창군의회 김종섭의장, 고창군의회 최인규의장이 선임됐다.

부회장에는 군산시의회 박정희 의장, 정읍시의회 유진섭 의장, 남원시의회 이석보 의장, 김제시의회 나병문 의장, 무주군의회 유송열 의장, 부안군의회 오세웅 의장이, 감사에는 장수군의회 유기홍 의장, 부안군의회 박천호 부의장이 선임됐다.

또한 사무총장에는 전주시의회 송상준 부의장이 선임하고, 협의회는 이날 협의회 구성이 완료됨에 따라 앞으로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김영재 기자

전북현대, K리그 새로운 역사 수립 위한 도전

23경기 연속 무패 타이틀 이뤄낼까?

내일 전주월드컵경기장서 광주FC와 경기
이호-이재성-김보경 역삼각 미드필더진 가동
왕부채 선착순 지급 등 팬서비스도 마련

Hyundai Oilbank K LEAGUE CLASSIC 2016

전북현대모터스축구단이 오는 30일 안방인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광주FC를 상대로 K리그의 새로운 역사를 쓰기 위한 도전에 나선다.

전북은 지난 24일 울산과의 '현대가 더비'에서 2대1로 승리하며 자신들이 2014년 9월 6일부터 2015년 5월 14일까지 세운 22경기 연속 무패 기록과 타이를 이루었다.

전북은 이번 광주전을 승리 혹은 무승부로 마칠시 K리그 역대 최장경기 연속 무패 기록을 경신하게 된다.

전북의 신기록 경신 가능성은 매우 높은 편이다. 상대팀인 광주는 창단 이래 전북에게 단 한차례의 승리도 거둔 적이 없고 이번 시즌 역시 리그 9위로 중하위권에 위치하며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전북은 신기록 경신을 위해 최근 절정의 기량을 선보이고 있는 이호-이재성-김보경 트리오의 역삼각형 미드필더진을 가동할 예정이다.

공격진 역시 지난 경기에서 결승골을 성공하며 부활을 선언한 김신욱과 울산전을 쉬며 체력을 충분히 회복한 이종호, 3경기 연속골을 터트리고 있는 로페즈가 최상의 컨디션으로 광주의 골망을 조준하고 있다. 여기에 부상에서 회복한 주장 이동국과 기복 없는 경기력을 선보이는 레오나르도 역시 공격 자원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구단은 역사의 날이 될 수도 있는 이번 홈경기에 팬들을 위한 특별한 선물을 준비한다. 무더운 날씨 속에도 응원하는 팬들에게 시원한 왕부채를 선착순으로 지급하며, '대명리조트 아쿠아, 여수 디오션 리조트 워터파크 티켓' 100매를 이벤트를 통해 전달할 예정이다.

전북의 수장 최강희 감독은 "기록에 연연했으면 오히려 이루지 못했을 기록이다" 며 "선수들이 기록에 대한 욕심보다는 팀을 위한 욕심을 냈기 때문에 가능했고, 홈 팬들의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런 선수들과 팬들에게 고맙고 박수를 보내 드리고 싶다"며 팬들과 선수단에게 감사를 전했다.

이어 "홈에서 펼쳐지는 경기이고 현재 선수단의 분위기가 좋아 꼭 승리를 거두겠다"며 각오를 전했다.

리그 3연패와 무패우승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전북이 이번 광주전을 승리로 장식할 수 있을지 팬들의 이목이 집중된다.

/김민근 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 매일 INDEX

4면 주요 현안 해결 뜻 모아

전주시와 새누리당 전북도당이 28일 예산정책협의회 1차 회의에서 낡고 협소한 전주역사를 호남의 대표관문답게 전면 개선하고 세계 전통문화엑스포를 유치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5면 "국기원, 무주 태권도원으로 이전을"

전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가 무주 태권도 성지화사업의 성공을 위해 서울 국기원의 무주 태권도원으로의 이전이 시급하다며 국기원의 무주 태권도원 완전 이전을 촉구하고 나섰다.

16면 근대문학의 선구자, 가람 이병기

가람 이병기 선생은 익산 여산에서 태어났다. 이 선생은 한국을 대표하는 근대문학의 선구자로 이름을 남겼으며, 현대시조의 중흥을 이룩한 인물로 문학계에 잘 알려져 있다.